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53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08.07~2025.08.13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6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9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기초자치단체(주민투표), 대통령, 국정과제, 에너지, 서비스
경제·관광	관광객, 여행, 할인, 항공, 이벤트
지역·사회	남성, 대응, 청소, 청년, 일본

※ 분석 기간 : 25.08.07.~25.08.13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기초자치 단체(주 민투표)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갈등 심화 - 도의회, 독자적 여론조사 강행 논란 - 국정과제 반영과 향후 불투명한 전망
	대통령	- 국정과제 발표 및 국정 운영 방향 제시 - 주요 인사 단행과 광복절 특별사면 - 제주 현안 논의 및 국비 지원 요청
	국정과제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명시 - 제주 제2공항 등 핵심 인프라 사업 - 제주 미래산업 및 주요 현안 과제 반영
	에너지	- 4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달성 - 그린수소 허브 도약 기반 마련 - 정부 에너지 정책에서의 소외 논란
	서비스	- 도민 편의 증진 위한 생활 밀착 서비스 - 여성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 주민 참여형 환경보전 활동 확대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 광복절 연휴 관광객 증가 전망 -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 영향 - 제주 관광객 수 회복세 전환
	여행	- K-팝 팬덤 겨냥 '퍼플 페스타' 개최 - '고아웃 슈퍼하이킹' 제주 첫 개최 - 가을 제주 여행주간 운영 및 홍보
	할인	- '썸머 시즌오프 할인바다' 이벤트 - 가을 여행객 대상 항공권 할인 - 정부 주도 '숙박세일페스타' 시행
	항공	- 제주-김포 노선, 세계에서 가장 붐벼 - 광복절 연휴 항공편 및 좌석 증편 - 가을 시즌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
	이벤트	- 한류 팬덤 겨냥 '퍼플 페스타' 개최 - '고아웃 슈퍼하이킹' 제주 개최 - '아유르베다 인 제주동백마을' 클래스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남성	- 축구 중 심정지 20대 남성 구조 - 올레길 탐방 중 20대 남성 열실신 - 펜션에서 지인 성폭행한 30대 남성 체포
	대응	- 재난 현장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초기 대응 - 경찰, 교제폭력 대응 매뉴얼 마련 - 호우특보 발효에 따른 비상 대응체계 가동
	청소	- 제주 청소노동자, 열악한 근로환경 실태 - 대학생 120명, 제주 해안길 대규모 정화 - NH청소버스, 농촌 마을 환경 개선 지원
	청년	- 10·20대 청년층 헌혈 참여율 감소 문제 - 제주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본격 추진 - 제주에너지공사, 청년 대상 아카데미 개최
	일본	- 제주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 행사 - 일제강점기 제주 독립운동 이끈 가톨릭 사제 - 성산면 씨름대회, 일본인 상대 항일 의거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8월 7일~8월 13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816건임
 - 정치·행정 분야 363건, 경제·관광 171건, 지역·사회 282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기초자치단체(주민투표), 대통령, 국정과제, 에너지, 서비스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기초자치 단체(주민 투표)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갈등 심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중임.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주민투표 요구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제주도 내부의 단일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어 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임 ·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영훈 지사와 김한규 국회의원, 이상봉 도의회 의장 간 행정구역안(3개안 vs 2개안)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심화됨. 이로 인해 지역 정치권 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부를 설득할 단일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주민투표 실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음
-------	----------------------	---

	기초자치 단체(주민 투표)	- 도의회, 독자적 여론조사 강행 논란 ·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명분으로, 제주도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주도의 자체 여론조사 실시를 강행하기로 함. 이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비판과 도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추진되고 있음 · 여론조사는 8월 20일로 예정되었으며,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문항을 확정할 계획임. 그러나 제주도정이 이미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고, 수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됨 - 국정과제 반영과 향후 불투명한 전망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명시되어 사업 추진의 명분을 확보함. 이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포함된 것임 · 하지만 국정과제에 주민투표 실시, 구체적인 행정구역안, 도입 시기 등 핵심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2026년 7월 출범 목표는 사실상 동력을 상실함. 이로 인해 제주 정치권 내 책임론이 부상하며, 사업이 2030년 지방선거에 맞춘 장기 과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짐
정치·행정	대통령	- 국정과제 발표 및 국정 운영 방향 제시 ·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보고받음.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정책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함 ·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조세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취약성을 지적하며,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지출 조정을 당부함. "한 뒷박 빌려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야 한다"며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함 - 주요 인사 단행과 광복절 특별사면 · 장·차관급 인선을 단행하여 신임 농촌진흥청장에 제주 출신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을 임명함. 또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제주가 처가인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을 지명하는 등 주요 인사를 발표함 · 광복 80주년을 맞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으며,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등이 포함되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킴. 국민 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경제인, 정치인, 노동계 등 2188명을 폭넓게 사면·복권함 - 제주 현안 논의 및 국비 지원 요청 · 오영훈 제주지사와 만나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고예산 반영을 논의함.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가파도 RE100 마을 조성,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함 · 대통령실과 제주도가 9월 제주에서 열릴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최대 현안인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지역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음

정치·행정	국정과제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명시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되어 사업 추진의 동력을 일부 확보함. 이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의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명시됨 · 그러나 주민투표 실시 여부, 행정구역 개수,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기지 않아 논란 해소에는 미치지 못함. 이로 인해 오영훈 도정의 '2026년 7월 출범'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장기 과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됨 - 제주 제2공항 등 핵심 인프라 사업 · 국정과제에 가덕도, 새만금 등과 함께 '지역별 신공항 조속 추진' 계획이 포함되면서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추진력을 얻게 됨. 이는 제주도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정부 차원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전국 신공항 건설의 구체적인 자원 조달 계획이나 개항 시기는 명시되지 않음.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는 진행되었지만, 실제 착공과 완공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게 됨 - 제주 미래산업 및 주요 현안 과제 반영 · 제주 7대 공약으로 '2035 탄소중립 목표 청정에너지 전환', '글로벌 위케이션 허브 육성',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격상',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이 포함됨. 또한 KAIST와 연계한 특성화 대학원 설립 검토도 반영됨 · 반면,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민간 우주산업 육성', 'UAM 운항' 등 미래 신산업 관련 과제들은 국정과제에서 제외됨. 특히 에너지고속도로 계획에서 제주가 빠지면서 지역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에너지	- 4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달성 · 제주도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량보다 2657톤을 추가 감축하며 4년 연속 감축 목표를 달성함. 이는 10년생 편백나무 약 4087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맞먹는 성과로 평가됨 ·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및 고효율 설비 교체 등을 통해 2022년부터 배출권을 확보하여 판매하고 있음. 이를 통해 총 8억 4300만원의 세입 효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도 추가 배출권 매각으로 세수 증대가 기대됨 - 그린수소 허브 도약 기반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5년간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함. 이를 통해 RE100 기반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전주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게 됨 ·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제주도는 지역 내 그린수소 인프라와 기술을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및 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함. 산학연 협력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기술 창업을 촉진할 계획임 - 정부 에너지 정책에서의 소외 논란 · 정부가 추진하는 RE100 산업단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대규모 ESS 구축 등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에서 제주가 사실상 제외되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됨 · 특히 전력망을 전국 'U자형'으로 잇는 '에너지고속도로' 장기 계획에서 제주가 빠져, 재생에너지 주도권을 잃고 에너지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 제주도정의 미진한 대중앙 절충 노력이 도마 위에 오름

정치·행정	서비스	- 도민 편의 증진 위한 생활 밀착 서비스 ·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24시간 비대면 택배 수령이 가능한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18개소로 확대 운영함. 2014년 도입 이후 누적 이용 건수가 17만 8천여 건에 달하며 도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 · 제주시 연동·노형 지역에서 배달앱을 통한 '다화용기 주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함.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주문 시 탐나는전 인센티브와 할인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여성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15일 내에 긴급 보호,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 복합·고난도화 되는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 중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임신을 계획 중인 도내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하는 '출산희망여성 한의 지원 사업'을 시행함. 첩약 또는 약침 치료비 90만원 상당을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 주민 참여형 환경보전 활동 확대 · 지역 주민이 숲 가꾸기, 습지 정화 등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 마을이 3년간 42곳으로 늘어남. 이는 제주의 생태자산 보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제주도는 오는 21일 성과공유 워크숍을 열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의 ESG 경영 연계 방안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관광재, 여행, 할인, 항공, 이벤트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관광객	- 광복절 연휴 관광객 증가 전망 · 2025년 광복절 연휴 5일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약 21만 6000명으로 예상됨.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항공편 이용객이 증가세를 견인함. 국내선 항공 이용객은 2.0%, 국제선은 26.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일자별로는 14일과 15일에 각각 4만 8000명이 몰려 연휴 중반에 방문객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반면 국제선 크루즈 입항 편수가 작년 5편에서 3편으로 줄어 국제선 선박 이용객은 48.6%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 영향 · 정부가 9월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전국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제주 관광업계는 이를 시장 확대의 기회로 보고 있음. 제주를 찾는 중화권 관광객의 94.3%가 개별 여행객이어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됨 · 오히려 제주 직항이 없는 중국 대도시 관광객을 '서울-제주' 등 연계 상품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함. 이에 따라 제주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이미 관련 신규 상품 기획에 착수함 - 제주 관광객 수 회복세 전환 · 올해 초 감소세를 보이던 제주 방문 관광객 수가 6월부터 성장세로 돌아섬. 2025년 2월 전년 동기 대비 18.2%까지 감소했으나, 6월 1.0%, 7월 4.1%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임. 7월 제주국제공항 이용객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됨 · 내국인 관광객 감소 폭이 크게 줄고, 제주 기점 해외 직항노선 확대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제주도는 단체관광 인센티브, '가성비 관광' 협의체 출범 등 민관 공동 노력이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함
경제·관광	여행	- K-팝 팬덤 겨냥 '퍼플 페스타' 개최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오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K-팝과 K-콘텐츠 팬들을 위한 '2025 퍼플 페스타 인 제주'를 개최함.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 속에서 제주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로, 서귀포시와 제주시 일대에서 진행됨 · 12일에는 방탄소년단(BTS) 멤버가 촬영한 '베케 정원'에서 K-팝 관련 프로그램이, 13일에는 제주목 관아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속았수다'를 주제로 한 전시 등 K-드라마 테마 프로그램이 기획됨 - '고아웃 슈퍼하이킹' 제주 첫 개최 · 전국 하이커들에게 인기가 높은 아웃도어 페스티벌 '고아웃 슈퍼하이킹'이 올가을 처음으로 제주에서 열림. 제주관광공사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귀포시 가시리 일대와 치유의 숲 등에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힘 · 이 행사는 매년 신청 시작 1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제주 방문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명 브랜드 기업과 협업하여 기획됨. 참가자들은 이틀간 총 22.8km를 걷게 되며, 지역 소득과 연계된 프로그램도 설계됨 - 가을 제주 여행주간 운영 및 홍보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가을 제주 여행주간'을 운영할 계획임. '지금, 제주 여행 제주에 스며드는 시간, Slow & Flow'를 주제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원에서 진행됨 · 가을 여행 시즌에 맞춰 다양한 할인 이벤트와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됨. 제주도는 가을과 겨울 시즌까지 '가성비 중심' 관광 활성화를 이어가고 '제주여행주간'과 연계한 향토음식 할인 이벤트도 펼칠 예정임

경제·관광	할인	- '썸머 시즌오프 할인바다' 이벤트 · 제주도와 제주관광협회는 8월 한 달간 갈치요리와 숙박시설을 최대 30% 할인하는 '썸머 시즌오프 할인바다' 이벤트를 진행함. 8월 중순 이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부담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됨 · 갈치요리는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22개 음식점에서, 숙박은 25일부터 31일까지 303개 업체가 참여해 진행됨. 5성급 호텔은 최대 30%, 그 외 숙소는 2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예약은 '탐나오' 플랫폼에서 가능함 - 가을 여행객 대상 항공권 할인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9월부터 10월까지 제주를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 가을여행 감사 이벤트'를 통해 항공비 부담 완화 프로모션을 진행함 · 8월 31일까지 네이버 항공권에서 제주행 항공권을 구매하면 선착순으로 네이버페이 2000원을 적립해주고,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은 특정 기간 예약·결제 시 각각 선착순 1만 원 할인, 편도 5000원·왕복 1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함 - 정부 주도 '숙박세일페스타'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8월 20일부터 본격 시작하며, 제주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짐. 총 236억 원 규모의 숙박할인권 80만 장이 배포될 예정임 · 제주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 예약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숙박요금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 할인권을 지원함. 가을편(8월 20일~10월 30일)과 겨울편으로 나뉘어 각 1회씩 총 2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항공	- 제주-김포 노선, 세계에서 가장 붐벼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2024년 항공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제주-김포 항공 노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으로 나타남. 해당 노선의 연간 이용 승객은 1320만 명으로 집계됨 · 2위인 일본 삿포로-도쿄 하네다 노선(920만 명)과 3위 후쿠오카-도쿄 하네다 노선(900만 명)을 큰 격차로 앞지르며 세계 최대 항공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위치를 확인시켜 줌 - 광복절 연휴 항공편 및 좌석 증편 · 광복절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맞춰 항공편 공급이 확대됨. 국내선 항공편은 총 1127편으로 작년보다 20편(1.8%) 늘었고, 공급 좌석 수도 21만 5224석으로 1.9% 증가함 · 국제선은 162편으로 전년보다 23편(16.5%) 증가했으며, 공급 좌석은 2만 9765석으로 17% 늘어남. 이에 따라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이용객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가을 시즌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항공사 및 온라인 여행사와 협력하여 가을 여행객 대상 항공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함. 이는 하반기 제주 관광 수요를 견인하고 항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임 ·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티웨이항공 1만 원 선착순 할인, 제주항공 편도 5000원·왕복 1만 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9월부터 10월 말까지 제주를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이 대상임

경제·관광 이벤트	- 한류 팬덤 겨냥 '퍼플 페스타' 개최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K-팝과 K-콘텐츠를 사랑하는 전 세계 한류 팬들을 위해 '2025 퍼플 페스타 인 제주' 이벤트를 9월 12~13일 개최함. 한류 팬덤을 대상으로 제주의 로컬 문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팬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BTS 촬영지인 '베케 정원'과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테마로 한 제주목 관아에서 K-팝 노래 배우기, 팬아트 전시, 드라마 관련 작품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임 - '고아웃 슈퍼하이킹' 제주 개최 · 매년 조기 매진을 기록하는 인기 아웃도어 페스티벌 '고아웃 슈퍼하이킹'이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림. 하이킹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제주 여행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기획됨 · 참가자 600명 한정으로 진행되며, 서귀포시 가시리 일대와 치유의 숲 등 22.8km 코스를 걷게 됨. 야외 콘서트, 로컬푸드 마켓 등 단순 하이킹을 넘어선 복합형 아웃도어 축제로 꾸며질 예정임 - '아유르베다 인 제주동백마을' 클래스 · 제주관광공사가 오는 8월 20일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동백마을에서 웰니스 프로그램 '아유르베다 인 제주동백마을' 클래스를 운영함. 인도의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를 제주 동백오일과 결합한 이색 체험을 제공함. · 참가자들은 아유르베다의 건강관리법인 '디나차리아'를 배우고 오일 요법을 실습하며, 동백오일을 활용한 솔밥, 동백꽃 차 등 특별한 식사를 경험하게 됨. 참가비는 1인당 5만 원임
---------------------------------	--

- **한류 팬덤 겨냥 '퍼플 페스타' 개최**
 -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K-팝과 K-콘텐츠를 사랑하는 전 세계 한류 팬들을 위해 '2025 퍼플 페스타 인 제주' 이벤트를 9월 12~13일 개최함. 한류 팬덤을 대상으로 제주의 로컬 문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팬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BTS 촬영지인 '베게 정원'과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테마로 한 제주목 관아에서 K-팝 노래 배우기, 팬아트 전시, 드라마 관련 작품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임
- **'고아웃 슈퍼하이킹' 제주 개최**
 - 매년 조기 매진을 기록하는 인기 아웃도어 페스티벌 '고아웃 슈퍼하이킹'이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림. 하이킹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제주 여행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기획됨
 - 참가자 600명 한정으로 진행되며, 서귀포시 가시리 일대와 치유의 숲 등 22.8km 코스를 걷게 됨. 야외 콘서트, 로컬푸드 마켓 등 단순 하이킹을 넘어선 복합형 아웃도어 축제로 꾸며질 예정임
- **'아유르베다 인 제주동백마을' 클래스**
 - 제주관광공사가 오는 8월 20일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동백마을에서 웰니스 프로그램 '아유르베다 인 제주동백마을' 클래스를 운영함. 인도의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를 제주 동백오일과 결합한 이색 체험을 제공함.
 - 참가자들은 아유르베다의 건강관리법인 '디나차리아'를 배우고 오일 요법을 실습하며, 동백오일을 활용한 솔밥, 동백꽃 차 등 특별한 식사를 경험하게 됨. 참가비는 1인당 5만 원임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남성, 대응, 청소년, 청년, 일본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남성	- 축구 중 심정지 20대 남성 구조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축구장에서 20대 남성이 축구 중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함. 현장에 있던 구좌의용소방대원이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출동한 구급대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해 응급처치함 · 신고 접수 10분 만에 자발호흡을 회복했으며, 소방헬기 '한라매'를 이용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됨.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영상통화 유도, 다중 출동시스템 가동 등 체계적인 응급대응이 환자 소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 올레길 탐방 중 20대 남성 열실신 · 서귀포시 안덕면 올레길 9코스를 약 3시간가량 걷던 20대 남성 관광객이 열실신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함. 최근 비 날씨로 주춍했던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제주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발생한 온열질환 사례임 ·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가 환자의 의식, 호흡, 체온 등을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진행함. 이후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되었으며, 다행히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파악됨 - 펜션에서 지인 성폭행한 30대 남성 체포 · 제주시 한 펜션에서 30대 남성 A씨가 함께 투숙하던 지인 여성 B씨가 술에 취하자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를 받음. A씨는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펜션에 숙박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됨 · 피해자의 다른 지인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임
	대응	- 재난 현장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초기 대응 · 제주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막는 활약이 두드러짐. 제주시 클린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조기 진화하거나, 과수원 및 단독주택 화재에서 인명을 대피시키고 초기 진압에 성공하는 등 재산 피해를 예방함 · 구급 현장에서도 '골든타임'을 지키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함. 축구 중 심정지로 쓰러진 20대 청년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의식을 회복시키는 등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 올해 각종 재난현장 지원은 177회에 달하며 소방본부는 이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함 - 경찰, 교제폭력 대응 매뉴얼 마련 · 최근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완성함. 기존에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거나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새 매뉴얼은 피해자가 비협조적이더라도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경찰이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임. 이는 법무부 및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법률 해석의 전국적 통일성을 도모한 결과임

지역·사회	대응	- 호우특보 발효에 따른 비상 대응체계 가동 · 정체전선과 태풍 '버들'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자, 제주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함. 이는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기상특보에 따른 호우피해 예방을 목표로 함 · 대응 방안으로 과거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 도로변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 하천변 등 위험 지역 사전 통제, 위험 징후 발생 시 선제적 주민 대피 등을 논의하고 시행함.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은 반복되는 피해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음
	청소	- 제주 청소노동자, 열악한 근로환경 실태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조사 결과, 제주지역 청소노동자의 과반수인 52.2%가 비정규직이며, 3명 중 1명 이상(37.5%)은 월평균 임금 실수령액이 1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은 낮은 임금, 남성은 고용불안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는 등 성별 간 어려움에 차이를 보임 · 절반 이상(59.4%)이 별도의 휴게시설 없이 근무하며, 근골격계 질환(70% 이상) 등 건강 이상 증상에 높게 노출되어 있음. 연구원은 청소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고용안정성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함 - 대학생 120명, 제주 해안길 대규모 정화 · '청년과 바다, 그리고 스포츠와 봉사'를 콘셉트로 '2025 대학생 87km 비치대장정' 6기 대원 120명이 5박 6일 일정으로 제주 해안 정화 활동에 나섬. 이들은 성산읍에서 출발해 김녕, 삼양, 애월을 거쳐 한림공원까지 이어지는 해안을 따라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전개함 · 2020년 '바다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구호로 시작된 비치대장정은 5년간 누적 415명이 참여해 1만 5609kg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기록함. 제주 비치대장정은 내년까지 2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 대학생들의 선행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 NH청소버스, 농촌 마을 환경 개선 지원 · 제주농협이 한 달간 시범 운영하는 '클린농촌 NH청소버스' 사업은 고령화로 인해 공동이용시설 관리가 어려운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함. 전문 청소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촌 환경 개선사업임 · 성산일출봉농협 임직원 및 봉사자 30여 명이 전문업체와 함께 시흥리, 신천리, 신평리 등 3개 마을의 화관 및 경로당을 청소함. 평소 청소가 어려운 유리창, 에어컨 등을 꼼꼼히 청소하고, 어르신들에게 청소 요령을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
	청년	- 10·20대 청년층 헌혈 참여율 감소 문제 · 과거 학생·군인 등 청년층에 의존했던 제주지역 헌혈 수요가 이들의 참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음. 10대와 20대 헌혈자 비중은 2018년 56.5%에서 지난해 50.2%로 줄었으며, 인구 감소에 따라 청년층 헌혈

지역·사회	청년	참여는 지속적으로 줄 것으로 예상됨 · 현재는 40·50대 중장년층의 참여 확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제주도는 중장년층 헌혈자 비율 목표를 50.9%로 설정하고, '찾아가는 헌혈 버스' 운영 등 청년층 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헌혈권장계획'을 수립해 대응에 나섬 - 제주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본격 추진 · 제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에 도내 최초로 선정됨. 이 사업은 청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선정 단체에는 3년간 최대 6억 원의 국비가 지원됨. · 제주시 일도동을 거점으로 (주)일로와가 제주 식문화를 기반으로 한 미식 공동체 마을 조성 및 '관계도시' 브랜딩을 추진함. 8월에는 '주도적 탐험대'라는 이름의 2박 3일 캠프를 3차례 진행해 청년들에게 제주의 식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임 - 제주에너지공사, 청년 대상 아카데미 개최 · 제주에너지공사가 지역 청년들의 에너지 전환 인식 제고와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 에너지전환 아카데미'를 개최함. 이는 203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알리고, 청년 주도의 에너지 전환 미래를 탐색하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임 · 8월 21일과 22일 '찾아가는 청년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에너지 시장 전문가를 초빙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 트렌드와 청년의 기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함. 이후 11월까지 정책토론회, 현장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일본	- 제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 행사 · 광복 80주년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 청소년 페스티벌'이 개최됨. 행사는 제주평화나비 주관으로 열렸으며, 관련 퀴즈와 만들기 부스, 청소년들의 시 낭송 및 공연 등으로 진행됨 · 이 행사는 세상의 틀을 깨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제주의 청소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며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됨. 기림의 날인 8월 14일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임 - 일제강점기 제주 독립운동 이끈 가톨릭 사제 · 일제강점기 제주에 파견된 아일랜드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소속 패트릭 도슨, 토마스 라이언, 어거스틴 스위니 신부가 제주도민에게 독립 의지를 고취시킨 사실이 재조명됨. 이들은 "조선도 아일랜드처럼 독립할 수 있다"고 설교하고 일장기를 밟는 등 일제에 적극적으로 항거함 · 일제는 이들을 유언비어 유포 및 천황 불경죄 등의 혐의로 체포해 징역 2년에서 5년형을 선고했으며, 이들은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광복을 맞이함. 정부는 이들의 공훈을 기려 1999년 건국훈장 애국장과 애족장을 추서했으며, 이들의 희생정신은 시대의 징표에 응답한 선교사의 모범으로 평가됨

지역·사회	일본	- 성산면 씨름대회, 일본인 상대 항일 의거 · 1927년 5월 16일 성산면 씨름대회에서 일본 선원들이 심판의 뺨을 때리고 몽둥이와 장작 등으로 성산 청년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함. 당시 일본 순사들은 일본인 측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태를 악화시킴 · 이에 분노한 성산 청년 500여 명이 몽둥이를 들고 일본인 선원들을 추격해 응징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함. 일제 당국은 이를 단순 폭력 사건으로 격하시키고 성산 청년 90여 명을 체포해 재판에 넘겨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 사건은 누적된 항일 감정이 폭발한 의거로 평가됨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